

2013년 9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

일시 : 2013.9.26(목) 15:00~16:30

1. 위원 주요 발언 내용

▲ 정확하고 심층적인 보도

- 역사교과서 내용 논의만 무성하고 왜, 무엇이 문제인지 내용 부족해 시청자들을 위해 심층적인 보도 필요해(박영상 위원장)
- 독거노인 여성 다수 남성보다 여성이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어 최근 5년간 핵가족화 1인가족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인 면을 심층분석하여 정확한 통계 보도를 하면 좋을 것(차경애 위원)
- 학생 범죄가 늘어가는 문제에 대해 왜 이런지 원인분석 등 심층분석 보도 필요해. 미래 범죄 예방에 도움될 것(차경애 위원)
- 대북정책 보도시 신뢰프로세스, 남북관계해결, 경제통일 등 다뤘는데 아쉬운점은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바뀌지 않을 경우 제한점이나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다뤘다면 좋았을 것(차경애 위원)
- 경제관련 기사의 주요 내용은 공신력있는 연구기관의 내용으로 경제분석을 한 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 국민들에게 자극적인 비교분석으로 치우치도록 할 우려가 있음. 보도시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함(임상혁 위원)
- 김승현회장 대법판결 보도시 9시경 뉴스Y는 단신으로만 다뤄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아쉬웠음(임상혁 위원)
- 대학입시정책 보도시 대학별 입시정보 일반인 알아보기 어려울정도로 복잡한면 있어.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정리해서 집중 보도하면 좋을 것(김경모 위원)
- 언론은 기본적으로 중립적 입장 고수가 원칙이지만 신문의 사설처럼 정확한 사실에 대해 지적할 필요 있어(최종준 위원)
- 대통령 리더십 관련 보도시 언론은 정권에 대해 바른소리 못하고 비중있게 다뤄지지 못하는 것 같음. 독일 메르켈 총리 3선 당선 보도의 경우처럼 비중있게 다뤄졌으면 좋을 것(김정연 위원)
- 9월 12일과 13일 개최된 세계해양포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물질 오염이 수산물 수입과 관련, 국민들에게 핫 이슈지만 심층적인 내용보다는 행사개최 보도에 그쳐 아쉬움(홍승용 위원)

▲ 화면 구성, 표현 등 개선필요

- 인터뷰화면에 네임명과 뉴스Y로고가 함께 구성되 어지러웠음 개선 필요.
- 글로벌Y. 지방시대등 앵커 클로징 멘트 "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..."동일해 멘트

달리 하면 좋을 것(한박무 위원)

- 뉴스Y로고를 강조하는 면보다 연합뉴스가 만드는 티브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앞으로는 로고를 적극 활용해 뉴스Y이미지 제고해야(김정연 위원)
- 국제뉴스 주시청자층은 경제적, 직업적 소득이 높은 계층이므로 우리나라도 높은 수준의 뉴스를 방송하기 위해서는 화면구성을 개선해 영상의 가치를 키워야 함(김경모 위원)
- 영상처리시 타메체는 다양한 화면을 구성해 보여주지만 뉴스Y는 비교시 미숙한 느낌 화면구성 더욱 노력할 필요 있어(김경모 위원)
- 대학생들 정보전달시 말보다 시각적인 인지가 큼 뉴스Y 화면 구성시 화면내용과 동영상들 인지되기 쉬운 화면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(김정연 위원)
- 뉴스특보의 헤드라인을 정확하게 표현해야. 예로 복지예산 대선공약 변경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“박대통령 죄송한 마음”이 아니라 “박대통령 기초연금 복지공약 후퇴 사과” 식의 표현이 옳을 것(홍승용 위원)

▲ 보도 장점 속보성 차별성 살려야함

- 보도채널로서의 장점은 속보성, 집중성임. 현재 이러한 장점이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듯해 시청률 추이가 정체된 것 같음, 주요 이슈사항 보도시 속보성이 매우 중요함(최종준 위원)
- 뉴스1번지 정치 뉴스 아이템은 다양화 되어가고 있어 좋으나 뉴스특성상 차별화가 어려워 출연자 발굴 및 스타앵커 양성해 차별성 키우면 좋을 것(한박무 위원)
- 글로벌Y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타메체보다 차별성의 장점을 살려가야 함 현재 연합뉴스와 내용이 대동소이함(김경모 위원)
- 이석기 의원 구속 내용에서는 타매체에서는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다룬데 반해 뉴스Y에서는 차분하게 보도하고 나중에야 자막에 속보로 나오는 등 아쉬운 점 여전해(임영호 위원)

▲ 뉴스Y 개선 및 연구필요

- 타 매체의 이슈사항 보도 및 손석희 영입 등에 대해 경쟁력 있도록 대응필요(최종준 위원)
- 하단자막 흐름속도 빠른느낌. 눈으로 따라읽기 힘들 정도이므로 속도 조절할 필요 있어(임영호 위원)
- 젊은 층의 스마트 폰으로 접하는 뉴스 취향을 고려할 필요 있어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기자들 중심의 보도에서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 다양해지고 있는 플랫폼을 고려해 연구할 필요 있어(김경모 위원)
- 보도리포트는 내용 산만하고, 핵심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해, 뉴스 보도 시 작가의 손질을 거칠 필요성이 있음. 요약정밀성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, 간결하고

- 핵심을 전달하는 Context를 위한 뉴스작가 시스템 보완 필요(홍승용 위원)
- 전두한 추징금 납부 등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며칠씩 반복 보도 일색이었음 앞으로는 최근 내용으로 업데이트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함(박영상 위원장)
- 추석기간 서울역, 고속도로 교통상황 밖에 없어 아쉬웠고 인터뷰 내용 또한 '고향에 왜 내려가십니까?' 등 준비 안 된 인터뷰로 지루한 느낌 개선 필요.
- 정권에 대해 언론은 있는 사실만 보도하기보다 비판능력과 해결방안을 다뤄야 함 타메체에서는 백악관 비서실장의 경우도 다루는 등 적극적인 면이 있지만 대다수 언론이 바른 소리 못해 아쉬워(김정연 위원)
- 학원가의 보도 내용이 마치 특정학원을 광고하는 느낌 이 들 때 있어 개선 필요(박영상 위원)
- 자살 보도는 모방 자살을 높이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자살에 대한 보도는 신중하고 구체적이지 않도록 다뤄야 함(차경애 위원)

▲ 외래어 부적합 용어 등 자제

- 뉴스다이제스트 영어 용어 너무 많아 꼭 필요치 않다면 개선할 필요 있어.
- 자살 보도 권고 기준 마련됐고 유명인사 자살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음. 자살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(차경애 위원)
- 법률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 있어(최종준 위원)

▲ 긍정적인 평가 사례

- 일기예보 음식 옷 등 생활정보 전달은 신선하고 좋아지고 있음(박영상 위원장)
- 차세대 전투기 사업 보도시 타사대비 속도성 및 심층 보도 됐고 화면 이미지 등 신선하고 구성 좋아(한박무 위원)
- 최인호 보도시 타사는 리포트만 했지만 뉴스Y는 업적 등 상사하게 보도해(한박무 위원)
- 역대 대통령 관련 보도시 심층성 돋보여 현재 뉴스 홍수 속에 의미 있는 내용만 모아 핵심적인 내용 전달과 발 빠른 대처(한박무 위원)
- 추석명절기간동안 사건사고 물가문제 교통문제 등 다양한 보도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좋아(임상혁 위원)

▲ 기타

-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의 개선이 시급(이석구 위원)
-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막/화면해설 방송 확대 필요(이석구 위원)
- 추석 보도 타메체 한복 복장으로 보도 뉴스Y 평상복장 보도 국민들의 분위기를 가 있으므로 복장 신경 쓸 필요 있어(최종준 위원)

- KTX열차에 제공되는 뉴스Y 프로그램 중 '이 시각 현장' 은 사진기사 제공 시점 과 기사의 실제 발생 시간이 차이남. 따라서 이시각현장은 '사진으로 보는 오늘 의 뉴스' 등의 제목으로 변경 필요(이석구 위원)
- 16일 6시 뉴스에서 수화제공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부 시간대 뉴스에서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것 같아 단계적으로 확대 필요(이석구 위원) (끝).